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침서

이 지 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 지음, 백경미 옮김, 출판 열린책들

최근 교양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예술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질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예술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다. 일부 학교 내 예술교육이 진행되어도 시험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이 대부분이다.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인근의 학원 또는 학교 내 활동 모임 등을 통해 접해본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교육의 기회가 지속되어졌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 “아니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이는 고등교육과정 속에서 예술교육의 입지가 좁은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도 입시와의 연관성이 적다는 입장과 학교운영상 필요에 의한 시간감축에 따른 교육시수 상설, 전문교사의 부재를 이유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일반계 학생들은 문화예술의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입시중심, 평가(결과)중심의 교육에 의해 예술교육의 기회측면에서 학생들은 학습자로서 권리를 지속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교육자들은 예술교육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학교 내 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관해서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의 첫 장을 보면 앞서 살펴본 부조리한 현상(사례)에 대한 입장과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다른 과목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술은 즐거운 과목이지만, 우리는 교과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진짜 공부가 있어요.

“예술도 체육처럼 중요한 정규교과 외 활동이지만, 필수 교육과정에는 속하지 않아요”

“예술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나 배워야 해요. 우리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간 낭비 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중요한 시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예술에 할애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 경희대학교 강사, love9640930@daum.net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말이 아닌가? 현실 속 학교교육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왜 예술 교육의 가치는 인정하나 교육되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예술교육이 진정한 교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본서의 저자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스는 미국의 인지발달 심리학 전문가이자 예술교육분야의 권위자이며, 예술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행동가다. 그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내에 「교육 내 예술 ARTS IN EDUCATION」 프로그램과 교육연구 집단인 「프로젝트 제로 PROJECT ZERO」를 설립하는데 힘썼으며, 「지역사회 예술센터의 교육적 효과와 미술관에서 실행 가능한 탐구 기반 교육과정」 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녀는 경험과 연구를 통한 예술교육의 탄탄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반대론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목이 교육의 전면과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타 교과의 보조적인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술교육의 학습과 이해 그리고 활용하는 통합적 본성의 특징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희석되어 학교 예술교육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예술이 타 과목들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현상은 통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함정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함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 내 융합(STEAM)교육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술교육이 비 예술과목에 기여하는 과목으로만 인식하는 도구로의 교과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의 본질적인 학습을 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는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전면과 중심에 배치되어야 하고 예술은 다른 무언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예술교육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의 권리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에 의구심이나 반대 입장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반박하고 있음에 학교 교육 내 예술교육의 자립과 필요함에 대한 당위성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옹호입장의 교육자, 예술가,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의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 논의와 토론을 통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1장 지형, 2장 교육 내 예술 찬성론, 3장 교육 내 예술 옹호, 4장 미래를 생각하며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얻고 있다.

1장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예술이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맡은 방식에 대한 예술교육사례를 개괄하였고 학교 교육 내 예술교육의 반대론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좋지만 필요하지 않다(가치), 둘째, 예술학습은 예술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나갈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유용하다(재능), 셋째, 정규 교과과정에 예술을 포함할 시간은 없다. 더 중요한 교과들을 가르칠 시간도 모자란다(시간), 넷째, 예술에서의 성취도는 측정될 수 없다. 표준 학력고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척 상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측정), 다섯째,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 예술은 예술가, 혹은 예술학 분야에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하다(전문기술), 여섯째, 예술은 특별한 준비물, 전문가와 초빙 예술가 급여, 그리고 현장 답사, 공연과 쇼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 예술은 비용이 많이 든다(자금), 일곱째, 학교에서 가르치

지 않더라도 예술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자율성) 이에 대해 현장교육예술의 경험을 기반으로 반박 주장을 펼친다.

2장 교육 내 예술찬성론에서는 예술교육이 학교 내 실현에 앞서 마주하는 과제인 평가(예술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전이(예술에서 배운 것이 어떻게 다른 과목들로 건너가는가), 연구(우리가 이 과제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해 저자는 왜 우리는 예술을 다른 과목들의 관점에서 정당화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예술의 독특한 특성들과 학습가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여 예술을 가르쳐야하는 본질적인 가치, 예술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교육 내 예술을 옹호하는 찬성론은 예술의 어떠한 특징이 있어 유용한 학습 결과를 양산하는 것일까. 저자는 학생들이 예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10가지로 정리해 제시한다.

첫째, 구체적인 생산물(상상력, 작용주체), 둘째, 감정에 대한 주목(표현, 공감), 셋째, 모호성(해석, 존중), 넷째, 과정지향(탐구, 반성), 다섯째, 연관성(참여, 책임)의 학습결과가 도출되어진다고 한다.

“예술은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감에 이르기까지 우리아이들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과 행동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결과중심의 경쟁적, 입시교육이 아닌 과정의 순환 속 경험적 가치를 찾는 예술교육의 특성이 비예술 과목에서 얻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장 교육 내 예술에 대한 옹호에서는 저자가 진행해온 예술교육 연구와 개혁을 위한 실천의 결실에서 본 일련의 옹호 문제를 거론한다.

보편적으로 교육에서 예술의 필요성을 위해 자주 언급되는 근거가 예술이 여러 다른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라면, 저자는 예술이 여러 다른 영역에서 성공한 아이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준다는 점 역시 동등하게 좋은 근거라고 제시한다. 또한 예술은 모든 유형의 아동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일반교육과정에 규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제시한다.

예술교육은 감수성과 기술의 사용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노력을 요하고 학습자에게 독특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향해 학습되어진 학생들에게 실패를 통해 생산적이며, 실패를 맞설 기회를 주고자 더욱 예술교육이 학교교육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 내 예술교육 찬성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21세기 예술교육의 변화를 꾀할 주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7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대립 VS 협력(우리/그들의 딜레마, 우리/모두 접근법), 둘째, 확장 VS 집중(우리는 그 일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변명, 우리는 이일을 해요라는 설명), 셋째, 격리 VS 조사(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재원조달 판단의 실수, 방법은 일을 것이다 연구), 넷째, 관용 VS 책무(어떤 예술교육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양질의 예술교육을 주장하라), 다섯째, 측정 불가능함 VS 유의미함(양적측정은 피상적이다, 균형 잡힌 전체로서의 교육), 여섯째, 추정 VS 발견(여기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을 거야, 여기서 예술은 어떤 상태인가?), 일곱째, 이탈 VS 인내(학교는 잊어버리고 학교 밖에서 양질의 예술교육을 찾아보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석들과 예술교육의 현실적인 권고를 제시

한다.

4장 미래를 생각하면서 에서는 저자 자신의 옹호 경험에 대한 반성과 각 장에서 언급한 내용의 후고, 그리고 앞으로 실천해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예술의 힘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들을 예술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데려가라”

시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측정불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 저자는 이들 양측 모두가 존중과 소통을 필요로 하며, 아이들이 과학에서 예술을 알고, 예술에서 과학을 아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더 좋게 할 비전을 다듬어 낼 균형 감각과 기회, 도구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이에 우리가 간관해서는 안 될 것은 시험, 사실, 양적인 측정, 그것은 과학이며, 교육이 시험, 사실, 양적인 측정을 넘어서는 길, 그것이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올바른 예술교육을 위해 학부모, 교육자, 관리자, 관리기구, 재단, 학생, 지역 사회지도자 등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책의 마지막에는 교육 내 예술 옹호 기관과 예술 교육 용어 해설이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다.

미국 내 예술교육 옹호입장의 다양한 영역별 단체의 정보와 함께 예술교육의 예술 옹호 관련 기관 및 주요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술분야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예술교육 옹호자를 위한 용어해설이 추가되어있어 이해를 도모한다.

저자는 미국의 교육환경 내에서 옹호활동을 통해 찾은 해답과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교육의 옹호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개인적인 수준에서 집단과 지역,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소통하고 이해과정을 통해 협력하여 창의적이며, 개인의 개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균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지침서이자 근거로 예술교육의 이해를 요구하는 이들, 예술교육자와 학습자, 예술교육의 현장에 종사하거나 잠재적 종사희망자들에게 예술의 특별한 가치와 협력 그리고 실천적 참여행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